

지역 매아리

# 원강·다강 재배 현장 평가회

### 농진청-정읍시농업기술센터, 재배면적 확대·기술력 증대 경쟁력 강화키로



#### 부안경찰서, 화물차량 불법행위 집중단속

부안경찰서(서장 이동민)는 화물차량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부안서는 지난달 25일부터 출포면 23번 국도 등 교통량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홍보와 단속을 병행 과속, 난폭운전, 적 재물 추락방지 위반을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부안서는 대형차량의 과속과 난폭운전 및 과적운행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려고 주민들의 불편과 원성이 높은 과적과 난폭운전에 대해서는 단호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이동민 서장은 "화물차량 법규위반 행위는 도로 위의 시한폭탄으로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들에게도 위협이 되고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큰 만큼 교통안전 홍보 및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안=이옥수기자

#### 고창군, 18일부터~22일까지 '친환경 교통주간' 운영

고창군은 세계 차 없는 날을 맞아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친환경 교통주간'을 운영한다.

'세계 차 없는 날'은 1997년 프랑스 서부 항구도시인 라로쉬에서 '도심에서 자가용을 타지 말라'는 시민운동에서 시작 됐으며, 2001년부터는 세계적인 캠페인으로 확산됐다.

이번 행사는 공공기관 중심으로 출근 시 도보나 자전거 대중교통을 이용한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저감, 녹색 교통 실천을 홍보하고 저탄소 생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한다.

이에 따라 22일 본청과 산하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세계 차 없는 날'을 운영으로, 공무원의 승용차 출·퇴근 자제 등 직원의 자발적인 동참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군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좀 더 많은 군민들이 대중교통 이용과 자전거 타기 등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운동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지황의 주산지 운동면에서 지난 15일 지황 신품종 재배 현장 평가회가 열렸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개발한 신품종인 '원강', '다강'을 진흥청과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협력으로 재배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평가회에는 지황 재배농가와 관심농가, 전국의 약용작물 담당자와 재배농가 지황 가공업체를 비롯 유관기관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품종별 평가가 이루어졌다. 평가에 따르면 다강(2010년 개발)은 병에 강한 다수성 품종이다.

현재 상황은 생육 중기로 잎이 지면으로 70도까지 세워져서 광합성이 좋다. 잎 형태는 장타원형이고 뿌리는 가는 방추형이다.

'원강(2011년 개발)'은 지황 재배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뿌리썩음병과 시들음병에 강한 다수성 품종이다. 잎 형태는 타원형이고, 잎 크

는 작다.

평가회에서는 또 관련 업체와 기관 등에서 지황을 가공한 젤리와 차 등 다양한 제품을 전시했다.

특히 칠보농협 운동면에서는 황제단과 경옥고 등의 제품을 선보였다.

시범포를 운영한 운동면 박진관씨는 "원강과 다강 외에도 3종의 품종을 비교 재배하면서 정읍에 적합한 품종을 선택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지황은 한약과 건강기능식품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지황을 가공한 숙지황은 한방에서 몸을 보하고 허약체질을 개선하는 용도로 빠지지 않는 약재이다.

정읍의 대표 먹거리로 유명한 쌍화차의 핵심재료가기도 하다.

최근 국내산 약재를 선호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에서는 병해충 예방과 시들음병에 강한 다수성 품종이 많은 품종을 개발하는데 지속적인 노

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장 실증시험 재배를 통해 지역에 잘 적응하고 농가 선호도가 높은 품종들을 지속적으로 보급해오고 있다.

특히 시는 2012년부터 지황 주산지로서의 명성 찾기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신품종 보급과 재배기술 실증시험, 노동력 절감을 위한 수확기 지원과 효율적인 종근 저장에 위한 자연대류식 저장고 지원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를 통해 재배면적 확대와 기술력 증대로 경쟁력을 강화해 가고 있다.

현재는 140 농가가 34ha에서 지황을 재배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배 기술은 물론 우량 품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공과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칠보농협 운동면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역 대표 특산품인 지황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 정읍시, 메이플스타 제작 발표회 개최

### 지자체 최초 오디션... 가요·개그·연기 3개 분야 진행

정읍시에서 개최하는 '제1회 메이플스타 오디션 제작 발표회'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기양동 IHQ(씨아더스 HQ) 스튜디오에서 열렸다.

발표회에는 김생기 시장, 김광필 KBS 교양제작국 국장, 가수 배기성, 서재이, 율라리세션 등이 참석했다.

메이플스타 오디션은 정읍에서 열리는 지자체 최초의 오디션이다.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음에도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한 지역 청소년들에게 도전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가요와 개그, 연기 3개 분야로 진행 된다.

발표회에서 김생기 시장은 "정읍에서 메이플스타 오디션을 개최하게 된 것을 뜻 깊고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메이플스타를 통해 k팝스타가 탄생되고 메이플스타가 우리나라의 가요와 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산실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해 시는 지난달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희망자 신청을 받고 있다.

시는 예선을 거쳐 선발된 대상자를 대상으로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



정읍시에서 개최하는 '제1회 메이플스타' 오디션 제작 발표회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기양동 IHQ(씨아더스 HQ) 스튜디오에서 열렸다. 발표회에는 김생기 시장, 김광필 KBS 교양제작국 국장, 가수 배기성, 서재이, 율라리세션 등이 참석했다.

간 정읍학생수련원에서 합숙 트레이닝을 한다.

이후 같은 달 22일 제2회 정읍시문화제 피날레로 메이플스타 본선 오디션을 진행, 가수, 배우, 개그 3개 분야에서 분야별 1, 2, 3 등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오디션 홍보대사 겸 심사위원을 맡은 율라리세션은 "존경하는 배기성 선배와 함께 정읍에서 열리는 지자체 최초의 오디션 프로그램 홍보대사와 심사위원을 맡아 영광이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재능 있는 인재도 찾고, 문화와 관광의 도시 정읍에 대해서도 더 많이 공부 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 고창읍사무소 청사 현 부지에 신축 결정

### 내년 하반기 착공 2020년 준공 예정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고창읍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고창읍사무소 청사를 현 읍사무소 청사 자리에 신축하기로 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현 고창읍사무소는 건립 된 지 38년이 지나면서 건물기 노후화되고 민원인들의 편의시설 부족, 주차공간 협소 등으로 읍사무소를 찾는 주민들의 불편이 커 그간 새로운 청사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군은 신축과 이전 등 여러 방안을 논의한 끝에 현 읍사무소 자리에 새로운 청사를 마련하기로 했다.

공사비는 총 85억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우선 2018년 3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토지매입을 시작으로 내년 하반기 착공해 오는 2020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읍사무소 신축은 그간 주민들이 겪

었던 불편함을 해소하고 공공청사의 변화추세에 맞게 행정업무 중심의 공간에서 주민 커뮤니티 중심의 미래지향적인 공공청사로 신축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군은 고창읍사무소 신축을 위한 타당성용역을 올 3월부터 5월에 걸쳐 완료했으며 용역결과 현 청사부지가 부지의양호성, 주민요구도, 접근성에서 10점 만점에 10점이 나왔다.

또한 고창읍 주민을 대표하는 이장단 92명으로 부터 현 청사부지에 신축사를 신축해달라는 청원이 의회에 전달되는 등 고창읍 주민 대다수가 현 청사 부지에 고창읍사무소 신축사가 신축되기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고창읍사무소가 신축되면 고창군청의 제2청사 기능도 같이하게 될 계획으로 새로운 행정타운이 조성되어 고창군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창=김영식기자

## 고창군, 아산~선운시간 군도 개통

고창군민들의 숙원이었던 '아산~선운시간 군도 확포장공사'가 마무리 되어 개통식을 가졌다.

지난 15일 아산~선운시간 군도 19호선에서 열린 아산~선운시간 군도 개통식에는 박우정 군수, 이경신 고창군의회 부의장, 도의원, 군의원, 기관단체장과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는 고창군의 관광·물류산업의 초석을 다지는 '아산~선운시간 군도 확포장공사' 준공을 기념하는 의미로 시공사에서 준비했으며, 경과보고, 유공자 표창, 기념사, 기념사주 순으로 진행됐다.

'아산~선운시간 군도 확포장사업'은 아산면 소재지부터 선운산도립공원까지 총연장 9.1km에 대해 국비

470여억원을 포함해 총 700여억원을 투입해 지난 2002년부터 시작된 고창군민의 숙원사업이다.

지난 2004년 '지방안여금법' 폐지에 따라 국비지원이 중단되면서 1.9km 구간을 남기고 공사가 중지되는 위기도 있었으나 잔여사업에 국비 108억원을 투입해 마침내 전 구간 개통에 이르게 됐다.

'아산~선운시간 군도 개통으로 선운산도립공원, 병마위, 운곡 탐사코스 등 고창군 전체 관광자원까지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접근성 향상으로 관광객 증가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통물류비용 절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김영식기자

## 정읍소방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캠페인 실시

정읍소방서가 지난 15일 '108살 전통 생고을시장'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생고을시장 내 소방방로 확보 훈련 및 시장 회전교차로~하너비트 시거리 구간 캠페인이 진행되었다.

정읍소방서·시청지역경제과·시장상인회 합동으로 참여하여, 소방차량 2대가 실제 상황을 가정하여 출동 훈련을 벌였다.

훈련의 주요내용으로는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통한 소방출동로 확보 ▲소방출동로 및 소방용수 시설 주변 불법 주차차량 단속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전통시장 화재예방 캠페인 등이다.

김 서장은 "국민의 명절 한가위를 맞아 장보기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바, 소방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소방차 길 터주기 양보운전에 동참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품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결핍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번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짙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Premium Ohdi Wine

GIFT SET 1호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호 | 750ml 1ea/12%

GIFT SET 4호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호 | 375ml 5ea/13%

GIFT SET 6호 | 500ml 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GIFT SET 일반 | 375ml 2ea/13%

TEL : 063-584-9960  
www.gangsanwine.com